

조선 역관에게 배우는 협상과 설득의 지혜

이 상 각
역사저술가



- I. 들어가는 말
- II. 대륙을 종횡했던 협상의 귀재, 이화종
- III. 한 여인을 구해 한 나라를 살린
대장부, 홍순언
- IV. 언변을 통한 타개의 달인, 표헌
- V. 부드러운 설득으로 조선을 지켜낸 김지남
- VI. 맺음말

조선 역관에게 배우는 협상과 설득의 지혜

I.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의 역관은 중국이나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의 통역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교실무를 전담했던 특수직 공무원이었다. 중국 사절단의 경우 고위관리로 구성된 사신들은 예조에서 작성한 문서를 전달하고 황제를 배알한 다음 환영연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마쳤다. 그들은 한학에 능통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현지의 관리들과 의례적인 필담을 나누었을 뿐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사역원에서 오랫동안 외국어 전문가로 조련된 역관들은 중국 관리들과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조선의 입장을 대변했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대중국정책 수립에 공헌했다. 그들은 또 각종 외교 분쟁에 적극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각종 기밀을 탐지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입수하여 국가 안보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관의 품계는 정3품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고, 빈곤한 재정 탓에 급료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역관에게 인삼전매권과 같은 무역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생계 자금을 자체조달하게 했다. 때문에 역관들은 통역의 소임을 마친 다음에는 시장으로 달려가 국제무역상으로서의 부수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역관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였고, 이후 청나라와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국제무역이 활성화된 숙종 연간이었다. 조선시대 대외협상의 주역이었던 역관들이 남긴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현대인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협상과 설득의 방법을 알아보자.

II. 대륙을 종횡했던 협상의 귀재, 이화중

연산군 대부터 명종 대까지 활동했던 역관 이화중은 명나라와의 교섭 과정에서 뛰어난 학문과 번뜩이는 재치로 명성을 날렸다. 언젠가 그는 홍문관의 부탁으로 북경의 유리창 서점가에서 『통감강목(通鑑綱目)』을 구입하려 했지만 명나라 조정의 서책 반출 금지조치로 인해 벽에 부딪혔다. 궁리 끝에 그는 예부의 관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한퇴지의 시에 ‘사람이 고금에 통달하지 못하면 말과 소에 옷을 입힌 것과 같다(人不通古今, 馬牛而襟裾)’라고 했습니다. 조선에서 『통감강목』을 찾는 이 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평소 우습게 여기던 조선 역관의 입에서 당대의 명문장가 한유의 시구가 흘러나오자 깜짝 놀란 관리는 특별히 그에게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화중은 것처럼 빼어난 학문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외교석상에서의 돌발 사태에도 즉각 대처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종종 때 대궐에서 명나라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열렸다. 전례에 따라 사신은 관모에 꽃을 꽂고 참석했는데 임금이 깜박 잊고 왕관에 꽃을 꽂지 않았다. 그러자 사신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손님과 주인이 함께 즐기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꽃을 꽂지 않으셨습니까?”

명나라 측 역관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임금은 대꾸할 말이 없어 낮이 붉게 물들었다. 그때 어전통사로 곁에 배석하고 있던 이화중이 임금의 입에 귀를 기울이는 척하더니 사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꽃이 노인의 머리에 오르기를 부끄러워하리라 여겨 그리하였는데 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할 따름이요.”

그 말을 들은 사신은 임금이 자신을 대접하는 뜻에서 꽃을 꽂지 않은 것이라 여기고 몹시 기뻐했다. 이화중은 이처럼 순간적인 재치와 화술로 냉랭해진 분

위기를 화기에애하게 바꾸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오고가는 외교 현장에서 역관의 역할은 실로 중요하다. 잘못 내뱉은 한 마디로 인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수십 년 철천지원수도 하루아침에 친구가 된다. 그런 말을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이 역관의 임무이자 능력이었다.

이화종의 활약은 그후에도 계속되었다. 1328년(중종 23년), 야인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난 중국인 유장이 명나라로 정식 쇄환(刷還)되기 전에 요동의 탕참(湯站)으로 도주했다. 한데 그는 요동도사(遼東都司)를 찾아가 조선이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려 한다고 무고했다. 당시 조선은 비밀리에 여진족 토벌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기밀의 일단이 누설된 것이다.

그로 인해 중대한 외교 분쟁이 야기되자 조정에서는 서둘러 이화종을 북경에 파견했다. 특명을 받은 그는 명나라 관리를 만나 요동 지역에 있는 여진족 토벌의 당위성을 설파함으로써 명나라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중국인 쇄환에 대한 조선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리하여 이화종은 조선군이 명나라 경내인 요동에서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는 등 값진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 무렵 역관들은 통역업무 외에도 여진족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했거나, 국경을 넘어와 인삼을 캐거나 도벌을 일삼다가 체포된 중국인들의 쇄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언젠가 이화종이 서해에서 표류하다 조선 연안에 상륙한 중국인들을 명나라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탕참에 인계하자 요동도사의 관리 왕송이 따지고 들었다.

“무릇 달아났다가 돌아오거나 표류하다 상륙한 중국인은 요동도사에 넘겨주는 것이 전례인데, 어찌하여 탕참에 떠맡기는가? 달아날 염려가 있으면 매를 때려 묶어 끌고 와도 되고, 목에 칼을 씌우거나 발에 차꼬를 채워도 되지 않겠는가?”

그의 힐난에 이화종은 정색을 하고 맞받아쳤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대국을 지극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험한 일을 당한 중국인을 보면 늘 배불리 먹이고 예의로 대합니다. 어찌 그들을 때리고

묶어서 끌고 오거나, 목에 칼을 씌우거나 발에 차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본래 그들을 호송하는 군마도 명목 없이는 함부로 오가지 못하는데, 그들이
달아나면 일처리가 서로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탕참에
인계하여 귀국의 관리 하에 요동도사로 호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화종의 논리 정연한 수사에 왕송은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렇
게 해서 1단계 목표를 달성한 이화종은 내친 김에 압록강 근처에 몰려와 농사
짓는 중국인들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전에 대인께서 엄중하게 그 일을 금지했는데, 아직도 협강(夾江)에 들어와
경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성정이 지극히 완고하고 포악하니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올해는 곡식이 여물었으니 추수가 끝난 다음에 처리합시다.”

“안 됩니다. 그러면 협강의 불법 경작을 영원히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해인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겠으며 어느 해인들 가을에 곡식이 여물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화종이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반론이 궁색해진 왕송은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그리하여 압록강 근처에 들어가 농사짓던 중국인들을 모두 추방하고,
그해 익은 곡식은 탕참 지휘관의 감독 하에 모두 거두어 요동도사의 창고에 보
관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외교 협상의 결과를 볼 때 언뜻 왕송이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왕송은 조
선의 요구를 들어준 대가로 요동도사가 필요로 하는 대량의 양곡을 무상으로
확보했으므로 오히려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화종은 상대가 만
족할 만한 미끼를 던져주고 나름의 실리를 취했던 노련한 협상가였다.

Ⅲ. 한 여인을 구해 한 나라를 살린 대장부, 홍순언

조선의 역관들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 바로 홍순언이다. 평소 의협심이 남달
랐던 그는 명나라 사행 길에서 위기에 빠진 한 여인을 구해줌으로써 조선 왕실
의 숙원이었던 종계변무(宗系辨誣)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이 일어났

을 때 명나라가 원군을 파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통문관지(通文館志)』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역관 홍순언이 사신과 함께 북경으로 향하던 도중 요동 지역에 있던 통주의 홍루에서 만난 기녀가 부모님의 장례 치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팔러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역대금으로 가져갔던 거금을 내주어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었다. 한데 그녀가 훗날 명나라의 실세였던 병부시랑 석성의 후처가 되어 은혜를 갚았다.”

당시 홍순언은 전례에 따라 무역을 하기 위해 관아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여인 때문에 한 푼도 남김없이 몽땅 써버린 것이다. 빈털터리가 된 그는 귀국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공금을 유용한 죄로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가 미녀에게 홀려 호기를 부렸다가 패가망신하게 되었다고 수군거렸다.

그런데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1583년(선조 16년)에 선조 임금은 명나라에 조선왕실 최대의 숙원이었던 종계변무를 해결하기 위한 주청사를 파견하면서 외교실무를 맡은 역관들에게 책임을 지웠다. 이번에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역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일찍이 명나라 정통 사서인 『대명회전(大明會典)』과 『황명조훈(皇明祖訓)』에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이인임의 아들인데 우왕·창왕·공양왕·세자 왕석까지 4명의 국왕을 죽이고 나라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종계변무란 바로 그 사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임무였다.

명나라는 그 동안 조선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줄 듯 말 듯 하며 2백여 년 동안 애간장을 태웠다. 공세적인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런 국가적인 사안을 역관들이 하루아침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궁지에 몰린 역관들은 홍순언에게 부채를 해결해 줄 테니 사행 역관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어차피 빈털터리였던 홍순언은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고 옥문을 나섰다. 그리하여 1584년(선조 17년) 이른 봄, 그는 주청사 황정욱의 수석역관이 되어 명나라에 들어갔다.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 종계변무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그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앞에 예부의 최고 책임자인 예부시랑 석성이 나타났던 것이다. 석성은 그가 과거에 통주에서 구해준 여인이 자신의

계실(繼室)이 되었음을 알리며 은혜를 갚겠노라고 다짐했다. 그의 노력으로 홍순언은 조선왕실의 종계를 올바르게 고친 『대명회전』 만력본을 품에 안고 귀국할 수 있었다.

1590년(선조 23년) 선조는 홍순언의 공을 치하하며 광국공신(光國功臣)으로 삼고 당릉군(唐陵君)이라는 군호까지 내려주었다. 아울러 왕실의 경호를 맡는 종2품직 우림위장(羽林衛將)에 임명했다. 역관의 한품은 정3품 사역원정에 국한한다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법령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홍순언의 활약은 그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임진왜란 개전 초기 조선군이 일본 군에 궤멸당하고 선조가 의주까지 피란하자 그는 급히 북경에 달려가 병부상서로 재임하던 석성에게 원군 지원을 간청했다. 그때까지 신속한 일본군의 북상을 주시하면서 조선과 일본의 동맹을 의심하고 있던 명나라 조정은 ‘조선이 무너지면 요동까지 위태롭다’는 석성의 견해에 따라 대규모의 원군을 파견했던 것이다.

이윽고 명군이 압록강을 건너오자 홍순언은 이여송의 통역관을 자원하여 진군 일정을 조율하고 조선 조정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존망의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홍순언은 1598년(선조 31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조선 역관들의 전설로 살아남았다.

홍순언은 단순한 역관이라기보다는 따뜻한 인품과 충심을 바탕으로 외교 실무자로서의 진면목을 발휘한 대장부였다. 그가 남긴 업적의 근원은 바로 인간에 대한 연민이었고, 인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연약한 면을 드러내 동정을 사려고 한다. 아이들은 상처를 내보이고 싶어 하고, 어른들은 한때 겪었던 고통과 재난의 경험을 훈장처럼 내민다. 그들의 연민을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면 그 이상의 보답으로 다가온다.

석성은 그런 홍순언의 연민의 힘에 이끌려 명나라의 모든 것을 내주어 조선을 구했으며, 그 책임을 지고 목숨을 잃었다. 훗날 명나라가 멸망한 뒤 그의 가족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해주 석씨의 내일을 열었음은 실로 무한한 인연의 여정을 짐작케 한다.

IV. 언변을 통한 타개의 달인, 표현

외교 현장에서 역관의 역할은 잘해야 본전이고 실수는 금세 도드라진다. 언제 오역이 나올지 모른다. 일이 끝난 뒤에도 자칫 방심했다간 기밀을 누설할 수도 있다. 때문에 역관은 순발력과 재치가 필요하면서도 늘 입이 무거워야 한다.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능력을 내보인 역관이 몇몇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명종 대부터 선조 연간까지 활약했던 역관 표현이다.

1597년(선조 30년) 명나라와 일본의 화의가 결렬되면서 고니시 유키나가와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군 1만 5천 명이 부산에 상륙했다. 그때 표현은 원군을 청하기 위해 정사 권협을 모시고 압록강을 건넜다. 한데 요동도사의 고위 관리 유공윤이 길목을 막아섰다.

“진짜로 왜군이 남해에 들어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먼저 조정에 연락할 게 아니요.”

그러자 표현은 사신을 대신하여 유공윤을 설득했다.

“적군은 벌써 함안과 곤양을 거쳐 진주와 두치진 등지까지 올라와 서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전처럼 조선 땅 깊숙이 들어온 뒤에는 명나라에서 원병을 보내도 늦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우리도 철차를 지켜야 하오.”

“이전에도 왜군의 목표가 요동이었거니와,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들이 압록강을 넘어오기라도 한다면 귀공은 황제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적의 재침은 중요한 정보이니 서둘러 조정에 보고한다면 오히려 공을 높이 치하할 것입니다.”

이처럼 표현은 조선의 어려운 형세와 명나라의 지원을 애원하면서, 한편으로 요동도사 관리들을 교묘하게 겁박하고,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임을 예돌러 표현했다. 그러자 겁을 먹은 유공윤은 서둘러 북경으로 사신을 안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1차 목표를 달성한 표현은 서둘러 현지 상인들을 만나 화약의 원료인 염초와 각궁의 재료인 물소뿔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귀국함으로써 장비가 미약했던 조선군이 왜군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권협이 『석당공연행록(石塘公燕行錄)』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는 정유재란 초기 명나라 원병이 신속하게 달려와 왜군의 북진을 막아냈던 이면에는 역관 표현의 보이지 않는 활약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하나의 사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바로 앞에서 보면 삼각형이지만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면 원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는 부수적인 시선을 이해하는 척 하면서 반드시 본질을 짚어주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표현은 ‘공심복적(攻心服敵)’, 곧 마음을 공략하여 복종시키는 방법으로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명나라의 관리를 설득했던 것이다.

V. 부드러운 설득으로 조선을 지켜낸 김지남

숙종 대의 역관 김지남은 뛰어난 정보력으로 청나라에서 화약제조법을 입수했고, 조정 신료들이 무관심했던 조청 국경 분쟁에 슬기롭게 대처했던 인물이다. 그는 28세였던 1682년 일본의 제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의 취임을 계기로 통신사를 파견했던 임술사행에 예물을 담당하는 압물통사로 참여하여 최초로 외국 땅을 밟았다.

그해 11월 16일, 귀국한 김지남은 강희제의 즉위 20주년을 축하하는 진하사의 일원으로 북경에 들어갔다. 그렇게 1년 동안 대륙과 열도를 드나든 그는 일본에서는 막강한 위력의 조총을 경험했고 청나라에서는 일상용품인 폭죽에 놀랐다.

그는 두 나라의 화약기술이 조선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진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품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에 역관 표현이 명나라에서 염초 제조법을 배워 왔지만 숙종 대에 들어선 당시에는 이미 구식이었다. 그때부터 김지남은 조정 중신들에게 화약기술 개발을 종용했지만 당쟁이

한창이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애가 탄 그는 홀로 화약 제조기술을 익히고 중국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기술자를 수소문했다.

1693년(숙종 19년) 진하사에 수행역관으로 연경에 들어간 그는 드디어 민간인 화약기술자를 찾아내 신식 화약제조기술을 입수했다. 그것은 길가의 흙에서 화약제조 핵심재료인 염초를 추출하는 첨단기술이었다. 그때부터 김지남은 병기창 도제조 남구만의 후원을 받아 제도가 간편하고 폭발력이 뛰어난 화약제조에 성공했고, 그 비법을 자세히 설명한 『신전자초방(新傳煮硝方)』을 편찬했다.

이를 두고 훗날 정조는 ‘금석(金石)과 같은 성헌(成憲)’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정조 시대, 장용영에서 막강한 조총병단을 운영하고 군사훈련에 화약이 빈번하게 쓰인 이면에는 이와 같은 김지남의 끈질긴 집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후 급변하는 숙종 대의 조정 분위기 속에서 역관의 소임에만 몰두하던 김지남은 청나라와의 국경 획정회담에 참여하면서 후기 조선의 강역을 확정하는데 큰 공을 세운다.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는 백두산 유역을 민족의 발상지로서 매우 신성시하고 있었다. 때문에 민간인의 거주와 통행을 엄히 금하고 수시로 관리를 보내 백두산 인근의 형세를 조사하곤 했다.

그 무렵 남구만은 1697년(숙종 23년) 청나라에서 비밀리에 입수한 『성경도(盛京圖)』를 숙종에게 바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강의 근원이 모두 백두산 정상에서 출발하여 동서로 나뉘어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계라고 보고했다. 백두산이 조선 영토의 기점임을 상기시킨 것이었다.

1712년(숙종 38년) 2월 24일, 강희제는 길림성을 관할하던 오랄 총관 목극등에게 백두산을 기점으로 조·청간의 경계를 획정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조선에 사신을 보내 자신의 뜻을 통보했다. 그로 인해 조선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다. 본래 명나라의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는 백두산이 여진(女眞)에 속한다고 기록되어 있었고, 조선의 최북단 요새인 진(鎭), 보(堡)의 파수(把守)는 백두산에서 한참 떨어진 갑산 근처에 있었다. 때문에 청나라 조사관이 그곳을 경계로 삼자고 고집하면 반박하기가 힘들었다.

궁리 끝에 신료들은 백두산 아래 흐르는 토문강과 압록강 두 강을 경계로 물의 남쪽을 조선의 영역으로 주장하기로 했다. 한데 그 근거를 『성경도』로 하려다가 포기했다. 청나라 측에서 지도의 출처와 구입경로를 따지면 조선의 대청 정보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국경의 경계획정은 목극등의 입김에

좌우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윽고 목극등이 현지에서 출발했다는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접반사 박권, 함경감사 이선부 등과 역관 김응현, 김경문 등을 파견하고 여러 군관을 대동하게 했다. 이때 숙종은 노련한 중국통 김지남에게 차사간이란 관직을 주어 수행하게 했다. 역관 김경문은 김지남의 아들이었으니 부자가 큰일에 동원된 것이었다. 압록강 인근에서 만난 양국의 관리들은 함께 해산진을 거쳐 4월 29일 백두산에 다다랐다. 그때 목극등이 박권에게 물었다.

“공은 두 나라의 경계를 밝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백두산 마루에 큰 못이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니, 큰 못의 남쪽이 곧 양국의 경계입니다. 지난해 황제께서 물으셨을 때에도 똑같이 아뢰었습니다.”

“조선에 그것을 증빙할만한 문서가 있습니까?”

“개국 이래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문서가 무슨 필요이겠습니까.”

“백두산 남쪽에 연이어 파수가 있습니까?”

“이곳은 매우 험준하여 사람의 발자취가 없으므로 파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대국의 책문 밖에 있는 땅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때 박권은 자신이 백두산 남쪽이 조선 땅이라고 했는데도 상대가 불쾌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내심 안도했다. 게다가 목극등은 백두산의 지도를 한 장 그려달라는 역관의 부탁에 “대국의 산천은 그려 줄 수 없지만 백두산이야 조선 땅이니 문제될 것이 없겠지”라며 선선히 응낙하는 것이었다. 분위기에 휩쓸린 박권은 국경 획정이 별 문제 없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며 내심 안도했다. 그런데 일행이 백두산에 오르던 도중 목극등이 박권에게 권했다.

“산길이 험한데 귀공은 나이가 많아 힘들어 하는 것 같으니 무산(茂山)으로 내려가서 기다리시오. 우리가 일을 마무리하면 만나서 문서를 작성합시다.”

그 말을 들은 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발길을 돌렸다. 나라의 국경을 확정하는 큰일에 최고책임자가 빠져버린 것이다. 이제 조선 측 인사는 몇몇 군관과 차사간 김지남, 역관들만 남았다. 노련한 목극등이 노린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

는 처음부터 백두산 전역을 청나라 영토로 확정지을 심산이었다. 그는 실권이 없는 조선 관리들에게 통고하듯 말했다.

“이 땅은 대청의 발상지로 신성한 땅이니 양국의 경계는 갑산으로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김지남과 김경문 부자뿐이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앞다투어 목극등을 설득했다.

“예로부터 백두산은 조선의 성지였습니다. 전조인 명나라도 이곳을 조선 영토로 추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례를 따름으로써 대국의 성덕을 보여주십시오.”

“무슨 소리? 조선의 파수는 갑산 근처에 있지 않은가. 그곳이 조선의 경계라고 인정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오해입니다. 백두산 지역이 청조의 발원지와 겹치기 때문에 일찍이 태조 황제께서 조선 국왕과 협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는 봉금지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파수가 멀리 물러나 벌목자나 심마니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의 경계를 정식으로 문서화한다면 봉금 이전의 상태로 정하는 것이 태조황제의 어의에 부합할 것입니다. 현 황제가 양국의 경계를 확정하려는 뜻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성지의 보전에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조선이 힘을 보탠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김지남 부자의 간곡한 설득이 마침내 목극등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실 목극등은 강희제의 뜻이 깔끔한 경계선 확정을 통한 내정의 안정임을 알고 있었다. 거기에 김지남이 분쟁 없이 일을 매듭짓는 것도 큰 전공이라고 달래자 욕심을 버렸던 것이다.

“흠, 그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백두산 정상에서 천지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압록강과 토문강의 갈래를 이루므로 천지를 중심으로 양국의 국경을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길은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지도상으로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대는 말이 통하니 편하군. 이 내용을 비석에 새겨두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해 5월 15일 백두산 남녘 중턱에 사상 최초로 중국과 조선의 국경을 획정한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그 결과 조선의 강역은 애초에 조정이 받아들이기로 내정했던 강역보다 5백 리나 넓어졌다. 김지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숙종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백만 대군으로도 이루기 힘든 일을 일개 역관이 뛰어난 언변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실로 김지남은 오랜 사행의 경험을 통하여 청나라 고위 관리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아울러 목극등이란 인물의 학식과 인품을 믿고 성실한 태도로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뢰도가 분명치 않다면 일단 그를 훌륭한 신사로 간주하고 대화를 진행하라는 현대적인 협상의 법칙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정직한 인물로 보이고 싶다. 악당에게도 정직한 친구가 있고 그를 위해 눈물짓는 어머니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협상을 할 때는 의견이 일치하든 결렬되든 간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미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선의는 배려를 부르고 배려는 양보를 부추긴다. 양보는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협상의 기술이다.

VI. 맺음말

예시한 몇 가지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백척간두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의 역관들이 발휘했던 설득과 조율의 이면에는 언제나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담겨 있었다. 아울러 오랜 세월을 걸쳐 다져놓은 인간관계와 그것을 바탕으로 입수한 각종 정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그들은 늘 최선의 성과를 도출해 냈다.

그들은 회담 초기에는 늘 강한 카드를 내보이지만 막바지에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두 발자국 정도는 흔쾌히 물러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기에 관전자들의 시야에는 단기적으로는 승패가 갈린 듯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머리를 맞댄 쌍방이 더불어 승자가 되는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실로 그들은 협상을 매듭짓는 최종 병기가 능수능란한 화술이나 금전적인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의를 이끌어내는 진실한 마음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